

‘-단’과 ‘-다는’의 관계에 대한 재고찰

- ‘-단’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

안예리*

|| 차례 ||

- I. 서론
- II. ‘-단’과 ‘-다는’에 대한 기존의 관점
- III. ‘-단’은 과연 ‘-다는’의 축약형인가?
- IV. ‘-단’의 문법적 성격 변화
- V. ‘-다는’의 등장
- VI. 결론

【국문초록】

오늘날 사전과 문법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을 ‘-다는’의 축약형으로 다루고 있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다는’과 ‘-단’을 본말과 준말의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본고의 핵심 주장이다. ‘-단’의 용례는 ‘-다는’의 용례보다 400년 이상 앞서 나타나는데, ‘-단’이 ‘-다는’에서 음운 축약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시기적으로도 ‘-다는’이 ‘-단’에 선행하든지 적어도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야 할 것이다. 15세기 문헌에 나타난 ‘-단’은 종결어미와 속격조사 ‘-ㅅ’이 결합한 ‘-닷’에 기원을 두며, ‘-닷’과 ‘-단’이 공존하다가 근대국어로 오며 ‘-단’의 쓰임이 우세하게 되었다. 이런 형태상의 변화는 ‘-단’의 분포 및 문법적 성격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단’에 후행하는 명사의 종류가 기존의 발화 관련 명사류에서 의존명사 ‘것’, 사람명사, 장소명사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비한정절에만 쓰이던 ‘-단’이 17세기 이후로 시제 선어말어미 ‘-ㄴ-’나 ‘-었-’과 결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이 재구조화를 통해 하나의 어미로 정착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한편 ‘-다는’의 용례는 19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출현이 매우 갑작스럽고 또한 광범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문법화 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주제어 : -단, -다는, 인용표지, 인용절, 재구조화

I. 서론

현대국어 문법론에서 일반적으로 ‘-다는’은 ‘-다(고) 하는’의 준말로, ‘-단’은 ‘-다는’의 준말로 기술되고 있다.¹⁾ ‘-다(고) 하는’ → ‘-다는’ → ‘-단’의 관계망에서 그동안 주로 논의되어 온 것은 ‘-다(고) 하는’과 ‘-다는’의 관계였고, ‘-다는’과 ‘-단’의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자는 본말로, 후자는 준말로 여겨져 왔다.

본고의 핵심적 주장은 위와 같은 일반적 가정과 달리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단’을 ‘-다는’의 준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는’이 원형이고 ‘-단’이 그 축약형이라면 역사적으로도 두 형태가 동일한 분포에 나타나 교체 가능한 양상이 확인되어야 하지만, ‘-단’이 15세기부터 꾸준히 쓰인 데 반해 ‘-다는’은 19세기 말에야 문증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 역사자료 말뭉치(이하 세종)와 19세기 말 20세기 초 종교서, 신문, 교과서, 소설 말뭉치 등 역사말뭉치에 나타난 용례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단’의 역사적 기원은 ‘-다는’이 아

1) 편의상 ‘-다는’은 ‘-다는’과 ‘-라는’을 총칭하는 용어로, ‘-단’은 ‘-단’과 ‘-란’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되 필요 시에는 개별 형태를 따로 지칭하겠다. 현대국어에서는 ‘-나는’, ‘-자는’이나 ‘-난’, ‘-잔’도 널리 쓰이지만 역사자료에서는 해당 쓰임을 거의 확인할 수 없기에 본고에서 제시하는 용례나 빈도 등은 ‘-다는’, ‘-리는’ 및 ‘-단’, ‘-란’에 한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니라 ‘-닷’이며, ‘-단’은 ‘-다느’와 무관하게 발달되어 온 형태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Ⅱ. ‘-단’과 ‘-다느’에 대한 기존의 관점

1. 국어사전의 기술 검토

문법 요소에 대한 국어사전의 풀이는 해당 요소에 대한 문법 연구의 총체적인 결과를 반영하는 동시에 언중들의 문법 의식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II장에서는 먼저 ‘-다느’와 ‘-단’에 대한 현행 6종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에 나타나 있듯이 대부분의 국어사전은 ‘-다(고) 하는’ → ‘-다느’ → ‘-단’의 관계를 토대로 ‘-다느’와 ‘-단’의 의미를 기술하였다.

(1) 가.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

-다느: ‘-다고 하는’이 줄어든 말

-단: 「1」‘-다느’이 줄어든 말

「2」‘-다고 한’이 줄어든 말

나. 『연세현대한국어사전(이하 연세)』

-다느: (줄어든 말로) -다고 하는

-단: (줄어든 말로) -다느

다. 『교학 한국어사전(이하 교학)』

-다느: ‘-다 하는’이 줄어든 말

-단: ‘-다느’의 준말

- 라.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이하 민중)』
 -다는: ‘-다고 하는’의 준말
 -단: ‘-다고 한’, ‘-다고 하는’, ‘-다는’의 준말
 마. 『동아 새국어사전(이하 동아)』
 -다는: ‘-다고 하는’이 줄어든 말
 -단: 미등재

‘-다는’은 (1)에 제시된 다섯 종의 사전에 모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며, 『교학』은 이를 ‘-다 하는’의 준말로, 나머지는 ‘-다고 하는’의 준말로 풀이하였다. ‘-단’은 『동아』를 제외한 나머지 네 종의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데, 『연세』와 『교학』은 ‘-단’을 ‘-다는’의 준말로만 보았지만 『표준』은 ‘-다는’과 ‘-다고 한’, 『민중』은 ‘-다는’, ‘-다고 한’, ‘-다고 하는’의 준말로 기술하였다. 이처럼 ‘-단’의 본말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단’을 준말로 본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한편, 매우 드물지만 준말인 ‘-단’과 준말이 아닌 ‘-단’을 구별한 사전도 있다.

- (2) 가.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이하 고려)』
 -다는: ‘-다고 하는’이 준 말
 -단19: 말, 소식, 이야기 따위의 명사를 꾸미면서, 그 명사의 내용을 나타내는 말
 -단20: ‘-다고 한’이 준 말

『고려』의 경우는 ‘-단’을 ‘-단19’와 ‘-단20’으로 나누었는데, ‘-단19’가 준말이 아닌 그 자체의 온전한 형태로 다루어진 반면 ‘-단20’은 ‘-다고 한’의 준말로 풀이되었다. ‘-단19’에 제시된 예문 ‘미안하단 말’을 보면, 이를

‘미안하다고 한 말’로 환원하기 어렵다. 반면 ‘-단20’에 제시된 예문 ‘나보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단 사람’의 경우 ‘나보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한 사람’으로 환원이 가능하다. 이처럼 현대국어에서 ‘-단’은 ‘-다고 한’으로 환원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두 가지 쓰임을 보이는데, ‘-다고 한’으로 환원 가능한 ‘-단20’은 20세기 이후 발달된 매우 현대적인 쓰임이다. 본고에서는 ‘-단19’에 해당하는 쓰임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발달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문법서의 기술 검토

‘-다는’에 대한 문법적 연구에서 주로 관심을 가져 온 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완형보문에서 ‘-다’에 결합한 ‘-는’의 문법 범주를 밝히는 것, 둘째, ‘-다(고) 하는’으로 환원 불가능한 ‘-다는’을 통해 ‘-다는’의 문법화를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단’에 대한 문법 연구자들의 관심은 ‘-다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단’ 자체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거의 없었고 ‘-다는’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 ‘-단’을 ‘-다는’의 축약형으로 언급한 정도이다.

‘-다는’에 대한 연구는 남기심(1973) 이후로 완형보문에서 종결어미에 후행하는 ‘-는’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는’을 보문자로 보는 견해, 완형보문을 ‘-고 하는’에서 ‘-고 하’가 생략된 구조로 보는 견해, 즉 ‘-는’을 관형사형 어미로 보는 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는’을 속격조사로 보는 견해로 정리할 수 있다(이홍식 1999:380-387).

완형보문에 대한 초창기 논의에서는 ‘-다고 하는’과 ‘-다는’이 의미 차이를 갖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다’와 ‘-는’을 분리하였다. 하지만 이필

영(1995), 임동훈(1995), 이지양(1996), 김선효(2004), 남신혜(2013) 등에서 ‘-다는’의 문법화를 주장하며²⁾ 이를 하나의 단일한 문법 형태로 보았다. 이러한 주장의 주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째는 ‘-다는’이 ‘-다고 하는’으로 환원될 수 없는 용례들의 존재이고, 둘째는 ‘-다는’의 경우 일반적인 관형사형 어미와는 시제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다. ‘-다는’의 문법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3)과 같은 예문을 통해 ‘-다는’의 ‘-는’이 일반적인 관형사형 어미와 다르다고 하였다.

- (3) 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은 이럴 때 쓰나 봐.
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단 말은 이럴 때 쓰나 봐.

(3가)에 쓰인 ‘-다는’은 (3나)의 ‘-단’으로 교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형사형 어미로 보기에는 문법적인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관형사형 어미라면 ‘-는’과 ‘-ㄴ’이 서로 다른 시제 의미를 실현시켜야 하는데 ‘-다는’의 ‘-는’은 ‘-ㄴ’으로 바꾸어 써도 시제 해석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임동훈(1995)에서는 ‘-다는’이 단지 ‘-다고 하는’의 축약형이라면 이때 ‘-는’은 일

2) 그런데 ‘-다는’의 문법화에 대해서는 공시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활발했지만 통시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극히 드물었다고 생각된다. 문법화의 징후가 언제부터 확인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바가 없다. ‘-다는’의 문법화에 대해 역사적 관점을 피력한 일부 연구에서도 역사자료에 나타난 ‘-다는’의 용례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의아한 부분이다. 김선효(2004)에서는 중세국어 소망 표현이나 의도표현에서 확인되는 ‘ㅎ-’ 생략 현상을 근거로 ‘-다는’의 문법화에 대해 논의였지만 그 과정에서 제시한 역사자료의 예는 ‘아닛느니라(←아니ㅎ느니라)’, ‘-고 겻노라(←고져 ㅎ노라)’, ‘-럿노라(←려 ㅎ노라)’, ‘-런는가(←려 ㅎ엿는가)’뿐이고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서 ‘-다는’이 쓰인 예는 제시하지 않았다. 즉, 다른 형태들에서 확인되는 ‘ㅎ-’ 생략 현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는’의 문법화 과정을 추론한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다는’의 용례는 19세기 말부터 확인되므로 중세국어의 ‘ㅎ-’ 생략을 통해 ‘-다는’의 문법화를 설명할 수는 없다.

반적인 관형사형 어미일텐데, ‘-다는’을 ‘-단’으로 바꾸어도 시제 해석에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볼 때 ‘-다는’의 ‘-는’은 ‘-다고 하는’의 ‘-는’과는 문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다는’의 문법화에 대한 이후 대다수의 연구에서 수용되어 왔다.

이처럼 오늘날 ‘-다는’과 ‘-단’이 의미 차이 없이 교체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다는’의 문법화에 대한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는’과 ‘-단’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단’의 기원이 ‘-다는’과 무관하다면 해당 주장은 타당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Ⅲ. ‘-단’은 과연 ‘-다는’의 축약형인가?

1. ‘-단’과 ‘-다는’의 출현 시기

오늘날의 직관으로는 보조사 ‘-는’이 수의적으로 ‘-ㄴ’으로 줄어들 듯이 (나는→난) ‘-다는’도 당연히 ‘-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다는’과 ‘-단’이 동일한 분포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부터였다. ‘-단’의 용례는 (4)와 같이 15세기부터 확인되지만 ‘-다는’의 용례는 19세기 말부터 나타난 것이다.

- (4) 가. 對答호더 우리 前生애 업스니 爲호야 齋 아니호고 三寶恭敬 아니
호단 전츠로 긴 劫에 漿水人 일후를 듣디 못호며<1459월인석
 23,080a>
 나. 法相宗中엿 本來 잇단 말와 곁디 아니호니라<1465원각경07하
 1,1:049a>

다. 왕측이란 도죽이 도시 곶단 말 듣고 사름 브려 자바가 겨집 사모려
 커늘<1471삼강행, 열017a>

(4)에 나타난 ‘-단’의 자리에 ‘-다논’이 쓰인 예는 중세국어 및 근대국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세종》에서 ‘-다논’을 검색해 보면 근대국어
 자료에서 동일 형태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때 ‘-다논’은 (5)에서 볼 수 있듯
 이 종결어미 ‘-다’에 보조사 ‘-논’이 결합된 것이다.

(5) 가. 자니 그르다논 아니흐실 듯 흐오리<1676첩해초1,031b>

나. 일년이 마춤 왓거늘 드러가 고치라논 흐엿거니와<16??진주하>

다. 東來 드르셔도 양 病이라논 너기지 아니흐실 거시니<1748개첩해
 1,047b>

라. 이 大事를 小小 訢 일의 拘碍 訢여 흐리 말니흐시는 거슨 所見이
廣大 訢다논 몬 訢올쇠<1790인어대3,001b>

(5가)의 ‘그르다논’은 ‘그르다고는’, (5나)의 ‘고치라논’은 ‘고치라고는’, (5
 다)의 ‘病이라논’은 ‘病이라고는’, (5라)의 ‘廣大 訢다논’은 ‘광대하다고는’의
 의미이다. 이러한 용례의 ‘-다논’은 본고에서 다루는 ‘-다논’과는 무관한 것
 이다.

2. ‘-닷’과 ‘-단’의 연관성 검토

‘-단’이 ‘-다논’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면 역사적으로 ‘-단’의 기원
 은 무엇일까? 기능상으로는 분포상으로는 ‘-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
 이는 형태로 ‘-닷’을 들 수 있다. ‘-닷’은 종결어미 ‘-다’에 사이시옷이 결합
 된 형태이다.

- (6) 가. 阿閼은 動 업닷 마리오<1459월인석14,050a>
 나. 廣熾는 너비 光明이 비취닷 뜨디오<1459월인석02,009b>
 다. 무로디 文에 念 업닷 마리 업거시니 엇테 이와 곧호뇨<1465원각
 경10하3,2:052a>
 라. 覺은 안닷 마리라<1482금강해1,014b>
 마. 更無이라 호몬 저 외에 놉 업닷 마리라<1482금강해1,024a>

(6)에서 ‘-닷’은 앞서 살펴본 ‘-단’과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기능 역시 후행 명사 수식으로 동일하다. 또한 ‘-느-’나 ‘-엇-’ 등 시제 표시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공통점도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6)에 나타난 ‘-ㅅ’의 기능을 속격조사로 보는가, 사잇소리로 보는가,³⁾ 후치사로 보는가 등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때 ‘-ㅅ’이 수식어 표지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통된 견해가 확인된다(이광호 2001:48).

안병희(1968), 홍윤표(1969) 등에서는 중세국어의 ‘-ㅅ’을 존칭체언과 무정체언에 결합하는 속격조사로 보았지만, 임흥빈(1981)은 사이시옷이 나타나는 다양한 분포를 고려해 그 기능을 ‘통사적 파격을 극복하는 수단’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이광호(2001)은 사이시옷의 분포가 속격조사보다 훨씬 광범하기 때문에 임흥빈(1981)의 설명이 타당성을 갖지만, 문법 기술로서는 제약성이 떨어지기에 보다 구체화된 설명을 요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중세국어 사이시옷은 N, NP, S, AD, ADVP에 통합되

3) 중세국어의 사이시옷을 사잇소리로 보는 견해에서는 그 기능을 음운론적인 것으로 파악하지만, 이광호(2001)에서는 사이시옷이 음운현상을 동반하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기능은 문법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動과 靜과 두 相이 다 나디 아니하야<능엄목판 6, 2b>’에서처럼 ‘-ㅅ’이 삭제될 경우 선행 성분들 간의 문법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는 후치사라고 규정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히 ‘-다’에 결합된 사이시옷에 대해 언급한 대목들이 확인되는데, 사이시옷의 기능을 ‘수식’으로 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허웅(1975)은 “사잇소리를 가지면 한 월 전체가 매김말(마디)로 바뀐다.”라고 하였고 이현희(1986, 1994), 임동훈(1995)는 ‘-다’에 결합한 속격조사 ‘-스’이 ‘흐논’과 교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광호(2001)은 ‘-다’에 결합된 후치사 ‘-스’이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논의들은 대체로 ‘-다’에 결합한 ‘-스’이 후대로 오며 ‘-ㄴ’으로 발달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즉, ‘-닷’에서 ‘-단’으로의 변화를 상정한 것이다. 이현희(1986, 1994)는 ‘-스’은 ‘흐논’과 교체가 가능하며 후대에 ‘-ㄴ’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계승하여 임동훈(1995)도 중세국어에서 ‘흐논’과 교체될 수 있던 속격의 ‘-스’이 16세기 이후 관형사형 어미 ‘-ㄴ’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이광호(2004:513-514)에서도 중세국어에서 ‘-ㄴ’, ‘-ㄹ’과 함께 인용을 나타내던 ‘-스’이 근대국어에서 ‘-ㄴ’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결국 그동안 국어사 연구에서는 ‘-단’을 ‘-다는’의 축약형으로 보지 않고 ‘-닷’으로부터 발달된 형태로 가정해 온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국어사전의 기술 및 현대국어 문법론의 논의와는 사뭇 다른 관점으로, 국어에 대한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의 간극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본고의 남은 부분에서는 ‘-닷’으로부터 발달된 ‘-단’이 근대국어 시기 동안 문법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닷’에서 ‘-단’으로의 변화

중세국어에서 ‘-닷’의 쓰임은 상당 부분 협주문에서 나타났고, 이때 피수

식 명사 자리에 전형적으로 쓰이던 명사는 ‘말’이다. 본문의 단어에 대해 의미 풀이를 할 때 ‘NP는 ~닷 마리라’가 일종의 고정된 표현 틀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닷 마리라’는 종종 ‘~단 마리라’로 쓰이기도 했다.

이광호(2001:48)은 “-단’은 ‘-닷’의 ‘ㅅ’이 ‘ㄷ’으로 중화된 뒤, 이 ‘ㄷ’이 다시 후행 체언 ‘말’의 ‘ㄱ’에 의하여 역행동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단’=‘-닷’과 동일한 구성이다.”라고 하여 ‘~닷 마리라’가 ‘~단 마리라’로 쓰인 이유를 기술하였는데 본고에서도 이러한 설명이 타당하다고 본다.

‘-닷>-단’의 변화는 Bybee(2000)에서 말한 음 변화의 ‘빈도 효과(frequency effect)’를 통해서도 설명된다. 사용 기반 이론(usage-based theory)에 따라 음 변화의 원리를 설명한 Bybee(2000:253)에서는 특정 토큰(token)이 머릿속에서 기억될 때에는 해당 토큰이 자주 출현하는 맥락과 함께 일종의 클러스터(cluster)로서 저장된다고 하였다. 중세국어에서 ‘-닷’은 주로 ‘말’에 선행하였는데 ‘-닷’에 대한 기억은 그 사용 경험에 대한 기억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기 때문에 ‘-닷’과 ‘말’은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며 ‘-단 말’의 음성형으로 저장되었다. 토큰의 쓰임이 고빈도일수록 해당 토큰에 나타난 변화가 빠르게 확산되므로 ‘-단 말’이라는 고빈도 클러스터에 나타난 음 변화는 ‘-닷’이라는 개별 토큰의 음 변화(-닷>-단)를 촉발시켰을 가능성이 높다.⁴⁾

이러한 가정은 실제적인 형태 변화를 통해 입증된다. 15세기의 ‘-닷’과 ‘-단’은 후대로 오며 ‘-단’으로 정착하게 되었는데, 말뭉치 용례에 대한 계량적 분석 결과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이다. <표 1>은 《세종》에 포함된 15~19세기 문헌에서 ‘-닷(-랏)’과 ‘-단(-란)’의 용례를 검색

4) 빈도 효과를 통한 설명은 본고의 초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심사 과정에서 익명의 심사위원께 도움을 받아 추가한 내용이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해 그 출현 빈도를 기록하고 세기별로 ‘-ㅅ’형과 ‘-ㄴ’형의 백분율을 계산한 것이다.

〈표 1〉 《세종》의 세기별 ‘-닷/랏’과 ‘-단/란’의 쓰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닷/랏	45	88.2	24	20.3	16	16	48	4.5	3	0.9
-단/란	6	11.8	94	79.7	84	84	1,020	95.5	346	99.1
합계	51	100	118	100	100	100	1,068	100	349	100

〈표 1〉에 나타난 대로 15세기에는 ‘-ㅅ’형이 주류를 이루었고 일부 예에서만 ‘-ㄴ’형이 쓰였으나 16세기 이후로는 ‘-ㄴ’형의 쓰임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향을 보였고 19세기로 오며 ‘-ㅅ’형은 거의 사라졌다.

IV. ‘-단’의 문법적 성격 변화

앞서 살펴본 대로 16세기 이후 ‘-닷’의 형태는 점차 사라지고 ‘-단’이 주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단지 형태상의 변화만은 아니었다. ‘-단’이 출현하는 환경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단’은 17세기부터 ‘-ㄴ-’, ‘-엇-’ 등 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하기 시작했고 피수식 명사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1. 시제 형태소와 결합하는 ‘-단’

앞서 여러 예문을 통해 살펴본 대로 중세국어에서 ‘-단’은 시제가 나타나지 않는 비한정절(nonfinite clause)에만 쓰였다는 특징이 있다. 분명히

현재나 과거의 사건을 기술한 맥락에서도 ‘-단’은 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이광호(2001)에서 제시한 중세국어 사이시옷의 분포, 즉 ‘N, NP, S, AD, ADVP 뒤’에서 S가 일반적인 절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보통의 절은 시제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에 제약을 받지 않지만, 중세국어의 사이시옷이 결합되던 S에서는 철저하게 시제 형태소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영어에서도 to부정사절이나 동명사절 등 시제가 실현되지 않는 비한정절은 상위문 내에서 명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 중세국어 사이시옷의 분포가 명사, 부사, 비한정절 뒤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광호(2001:48)에서는 중세국어의 사이시옷을 속격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결정적 근거로 ‘-다’나 ‘-라’에 결합된 ‘-스’의 예를 들었다. 정동사 어미에 결합한 ‘-스’의 쓰임은 일반적인 속격조사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의 절이 한정절(definite clause)이 아니고 명사나 부사처럼 행동하는 비한정절이기 때문에 중세국어의 사이시옷을 속격조사로 보는 데에는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상기한 대로, 중세국어의 ‘-닷’에서 ‘-스’은 구 단위 이상에 결합할 경우에도 비한정절에만 쓰여 속격조사로서의 쓰임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점은 그 형태가 ‘-ㄴ’으로 실현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17세기부터는 ‘-단’이 선어말어미 ‘-느-’와 결합한 예가 나타나는 등 그 문법적 성격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7) 가. 아가네 역신흔단 말 듣고 일시도 닛줍디 못흐여 분별만 호고<167?

진주하>

나. 의병이 닐어난단 말 듣고 친히 병냥을 피호더니<1617동삼충

1,070b>

- 다. 틔툼이 안자서 한숨지며 설워흔닷 말 이시면 내 법을 다홀 거시니
 듯고만 이시라<16??서궁일051b>
- 라. 瘡好忘疼 지난 일은 닛는단 말<1715역어해061a>
- 마. 使道계서 病患이 계시되 扶病하시고 宴에 參詣하려 흔신단 말은
 ㅁ장 가륙하신 일이 아니온가<1790인어대4,014b>
- 바. 엇지흔여 아오로 회보 전흔는 사름을 상급 은즈를 준단 말이 엇고
 다만 일폭 글월만 가져왔노고<17??낙진팔132>

(7가)의 ‘역신흔다’는 ‘천연두를 치르다’의 뜻으로, 중세국어에서라면 ‘역
 신흔닷 말’ 또는 ‘역신흔단 말’로 쓰였겠지만 근대국어에서는 ‘역신흔단 말’
 과 같이 ‘-느-’를 동반한 채 쓰였다. 나머지 예의 ‘닐어난단’, ‘설워흔닷’, ‘닛
 는단’, ‘흔신단’, ‘준단’에서도 ‘-느-’가 확인된다.

한편 ‘-단’ 앞에 ‘-엇-’이 쓰인 예는 17세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18세기로 오며 많은 용례가 확인된다.

- (8) 가. 陶彭澤의 돈 업시서 菊花 對흔앗단 이룰 미양 슬노라<1613두시
 중11,033b>
- 나. 자던 사름이 갓가스로 니러 불을 쓰디 아미 혼동 아디 못흔나 무셔
 위 불 노햇단 말을 못흔고<16??서궁일062b>
- 다. 서명선 상소 후에 궁관이 등신의게 전흔엇단 곡절을 과연 후검의
 게 듯즈오니 뼈 흔되<1777명의해2,052a>
- 라. 근스티 아니흔단 말과 넉넉히 모역흔엇단 말과 점디 아닌 사름이
 란 말노뼈 말을 놀너<1778속명의2,014a>
- 마. 오라지 아녀 내가 김상목의게 편지흔엇단 말이 계동으로부터 흘러
 드러오니 이 반드시<1777명의해,하,존현각일귀004a>
- 바. 아전이 촌담의 가 밥을 먹을시 덩둥 노귀 그 부둥으로서 왔단 말을
 듯고 아전인 줄은 몰나 프러 굴오디<1758종덕해,상026b>

(8)의 ‘對^ㅎ앗단’, ‘노^ㅎ앗단’, ‘견^ㅎ엇단’, ‘모^역ㅎ엇단’, ‘편^지ㅎ엇단’, ‘앗단’에서 ‘-엇-’과 ‘-단’의 결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중세국어에서는 비한정절에만 쓰이던 ‘-단’이 근대국어에 와서는 한정절로 분포를 확대하게 되었고, 후대로 올수록 비한정절에 쓰인 용례는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 결과 오늘날 ‘-단’은 한정절에서만 쓰이게 되었다.

이처럼 ‘-단’이 한정절에 널리 쓰이게 된 데에는 ‘-ㄴ’이 중세국어의 속격조사 ‘-ㅅ’에서 기인했다는 인식이 희미해진 점이 주요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이후로 ‘-닷’의 쓰임은 극히 축소되고 ‘-단’의 쓰임이 대폭 확장되었는데, 이러한 형태 변화의 결과 17세기 이후로 ‘-단’이 ‘-닷’에서 유래했다는 인식이 열린 것이다. 그런데 ‘-단’의 ‘-ㄴ’은 관형사형 어미 ‘-ㄴ’과 음성적으로도 분포적으로도 동일성을 갖는다. 따라서 비한정절에 결합되던 속격조사 ‘-ㄴ(<-ㅅ)’이 관형사형 어미에 전인되어 한정절에 결합하는 어미로 발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종결어미 ‘-다’와 속격조사 ‘-ㅅ’의 결합형에서 하나의 단일한 어미로 재구조화된 결과 시제 형태소와의 결합이 자유로워진 것이다.

2. 피수식 명사의 다양화

‘-단’이 하나의 어미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변화는 피수식 명사의 다양화이다. 15세기에 ‘-닷’이나 ‘-단’에 후행하는 명사는 거의 대부분이 ‘말’이었고 일부 예에서 ‘말씀’, ‘견^전’, ‘뵈^ㅌ’ 등이 쓰였다.

(9) 가. 阿闍은 動 엇닷 **마리오**<1459월인석14,050a>

나. 智德의 健히 化^ㅎ산 이룰 ㅎ마 보습과라 니르시니 이논 自然히
만드기 알리랏 **마를** 領^ㅎ하시니라<14??법화경04,169a>

다. 양시 명도선상의게 도혹글 비화갓다가 선성이 죽닷 말 듣고 신위

밍ᄃ라 노코 올오 혼디 비호던 사름미게 유무ᄃ여 알외니라<1518
이륜행,초047a>

라. 閻浮提人 內에 如來人아스 難陀ㅣ 出家혼 功德으로 하늘해 가
넛다가 道理 마로려 ᄃ단 **전츠로** 하ᄃᄃ 목수미 다ᄃ면 이 地獄에
들릴씩 프를 글혀 기드리느니라<1459월인석07,013b>

마. 이는 如來人 阿僧祇 功德을 닐어도 能히 다 몬ᄃ리랏 **프들** 結ᄃ야
나토시니라<14??법화경03,47a>

위의 예에서 ‘-단’이 이끄는 내포절은 모두 피수식 명사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9가)~(9다)의 내포절은 ‘말’의 구체적 내용을, (9라)의 내포절은 ‘전츠’의 구체적 내용을, (9마)의 내포절은 ‘프들’의 구체적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2>는 《세종》의 15~19세기 문헌에 나타난 세기별 피수식 명사의 종류와 각각의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세종》에 포함된 세기별 문헌의 총량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표 2>에 제시된 빈도는 세기 간 직접적 비교가 불가하지만, 표에 제시된 피수식 명사의 목록을 보면 후대로 올수록 다양한 명사들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알 수 있다.

〈표 2〉 《세종》의 세기별 피수식 명사의 쓰임

	빈도	유형	피수식 명사 목록(빈도)
15세기	51	5	말(36), 프(7), 일ᄃᄃ(4), 전츠(2), 말ᄃᄃ(1), 사름(1)
16세기	118	6	말(66), ᄃᄃ(44), 벼술(4), 글월(2), 마술(1), 마ᄃᄃ(1)
17세기	100	10	말(55), ᄃᄃ(31), ᄃᄃ(4), 사름(3), 중(2), 글(1), 너인(1), 프(1), 말ᄃᄃ(1), 소문(1)
18세기	1,068	26	말(689), 말ᄃᄃ(230), ᄃᄃ(46), 사름(43), 자(12), 피ᄃᄃ(9), 겨집(6), ᄃᄃ(6), 가사(3), 글(3), 교(2), 글귀(2), 글즈(2), ᄃᄃ(2), 줄(2), 격서(1), 곡절(1), 말ᄃᄃ(1), 명(1), 선비(1), 손(1), 쇼식(1), 일ᄃᄃ(1), 절(1), 절귀(1), 중(1)
19세기	349	39	말(160), ᄃᄃ(45), 사름(33), 말ᄃᄃ(31), 자(者)(12), 아ᄃᄃ(7), 벼술

			(5), 쿨(4), 눌(4), 마울(4), 겨집(3), 절(3), 섣비(3), 자(字)(3), 규계(2), 너인(2), 몰(馬)(2), 부(2), 성(2), 술(2), 줄(2), 간인(1), 곳(1), 글즈(1), 도적(1), 도치(1), 동산(1), 뜻(1), 못(1), 뵈(1), 문즈(1), 비(1), 부쳐(1), 상(1), 성부(1), 일흠(1), 증(1), 책(1), 황태(1)
--	--	--	--

위에 제시된 대로 어느 세기에도 ‘말’이 가장 높은 빈도로 쓰였는데, 세기별 용례의 총합에서 ‘말’의 용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면 피수식 명사의 다양화를 조금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세종》의 세기별 피수식 명사 중 ‘말’이 차지하는 비율(%)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말	70.6	55.9	55	64.5	45.8
그 외	29.4	44.1	45	35.5	54.2
합계	100	100	100	100	100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15세기에는 70.6%였던 것이 19세기로 오며 45.8%로 떨어져, 피수식 명사가 고빈도의 ‘말’ 외에도 다른 명사들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에서 16세기로 오며 ‘말’이 차지하는 비율이 70.6%에서 55.9%로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비율의 변화는 상당 부분 ‘것’의 쓰임에 기인한다. 16세기 용례 분석 결과 ‘말’이 66회로 1순위를 차지했고 ‘것’이 44회 쓰여 2순위를 차지한 것이다. (10)은 16세기부터 확대된 ‘~란 것’의 용례이다.

(10) 가. 일히란 거슨 즘승을 자바 제호고<1517번소학07.006b>

나. 겨지비란 거시 오래 사롬만 사오나온 이리 업세라<1565순천김>

다. 박하탕이란 거슨 박하 서너 님플 달힌 물이라<1711두창경019b>

라. 나도 이번 가미 넘녀홀 일이 업고 글이란 거시 귀히니 물니치디
말나<17??낙일팔168>

마. 동모란 거손 궂치 學校에 다니고 궂치 工夫를 하며 또 궂치 노는
者를 일으느이다<1896정심소09b>

바. 사람의 므음이란 거손 저울궂티 평하고 저울궂티 붉아 혼 터럭도
스스로은 욕심의 더러운 비 업스니<18??명성현2:18a>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것’은 모두 ‘-란’ 뒤에 나타났다.

‘것’ 외에도 사람명사 역시 후대로 오며 비중이 증가하였다. 15세기에도 ‘-란 사람’의 용례가 1회 발견됐지만 사람명사가 쓰인 비율이 다른 명사들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 것은 근대국어 시기였다. (11)은 17~19세기 문헌에 나타난 해당 용례이다.

(11) 가. 일향의 박종순이란 놈이 오욕하고져 하여 둥인어미로 그 뽏들 탐
디히거늘<1617동삼열7,084b>

나. 동계란 사람이 곡천이란 사람 ㄷ려 무려 골오디 물이 부피 잇느나
<1682마경언,상1a>

다. 이러므로 네 원취란 겨집은 아비 명세를 디히여 선원을 위하야 녀
산 하의셔 죽고<17??낙선오203>

라. 원간 허해랑은 동경의셔 사는 허교슈(許教授)란 늙은 선비의 딸이
니<17??낙일육116>

마. 一日은 龍福이란 兒孩가 조고마흔 山에 가서 혼즈 다니며 놀더니
<1896정심소032a>

바. 한나라 관감이란 간인이 흉노에게 항복하여 리릉에 군사살이 진하
고 구안병이 업다 하니<1883명성경034a>

한편 (12)는 피수식 명사 자리에 장소명사가 쓰인 예이다.

(12) 가. 원간 쵸산(焦山)이란 **피히** 우호로 당강(長江)을 년호였고 아래로
대회를 통호야 쵸쥬(楚州) 강쥬(江州) 두 고을 디경의 이시니
<17??낙일오074>

나. 두 도적을 죽이려호야 예수와 흠끼 끄을고 갈와리아란 **곳에** 니
르러 십즈가에 못 박을시<1892성경직4,065b>

다. 예수 | 종도와 혼가지로 옛세마니란 **동산에** 밋츠샤 종도드려 굴으
샤디<1892성경직4,026b>

라. 금의 죽거늘 집을 올마 숄외란 **딴올히** 가 네를 일워야 일이 되리라
<18??광기해020b>

마. 운디관 셋녁히 두어 니는 가서 석디란 **모시** 이시니<18??광기해
049a>

장소명사의 경우 16세기에 ‘~랏 마슬’의 예가 1회 발견되었지만 해당
쓰임이 널리 나타나는 것은 18세기 이후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6세기 이후 ‘-단’에 후행하는 피수식 명사는
의존명사 ‘것’, 사람명사, 장소명사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화되었다.

V. ‘-다는’의 등장

앞서 살펴본 대로 중세국어나 근대국어 자료에서는 ‘-다는’의 쓰임을 확
인할 수 없었지만, 19세기 말부터는 종래에 ‘-단’이 쓰이던 자리에 ‘-다는’
이 쓰인 예가 여러 문헌에 두루 나타나기 시작했다. 19세기 말부터는 신문,
종교서, 소설, 잡지, 교과서 등 문헌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는’의 용례가
광범하게 문증된다.

(13)은 신문류에 나타난 용례로, 동일한 분포에 실현된 ‘-다는’과 ‘-단’의

예를 함께 제시하였다.

- (13) 가. 근일 일본 신문들에 아라사와 일본이 조선을 꺾치 보호한다는 말이 만히 잇스되<1896/05/16독립신문01>
 가'. 빅작 정상형 씨가 니각에 다시 드러간단 말도 잇더라<1896/06/23 독립신문02>
 나. 강화 보창학교장 리동휘 씨가 경시청에 잡혔다는 말은 전보에 게지혔거니와<1907/08/16대한매일신보02>
 나'. 황성군슈 신흥택 씨가 포군에게 잡혀갔단 말은 전보에 게지혔거니와<1907/08/16대한매일신보03>
 다. 논즈에 국가에서 외국 사람의게 빚슬 얻어 죠삼 흐느디 쓰게 마련한다는 말이 잇서 누츠 본보 잡보중에 니엿거니와<1898/10/15제국신문>
 다'. 독립 협회에서 리움익씨 스건에 디흐야 결석공기 지판을 청혔단 말은 전호에 염의 니엿더니<1898/08/24제국신문>

신문의 경우 종류나 일자에 관계 없이 ‘-다는’의 예가 두루 확인된다. (13)에 제시된 예문의 쌍은 당시 ‘-다는’과 ‘-단’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현상은 신문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뒤에서 소개할 종교서나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14)는 종교서에 나타난 ‘-다는’의 예이다.

- (14) 가. 너희 말이 오직 올코 클다는 거시 이에서 넘진 즉<1887예수성,마태복음05:37절>
 나. 기욕 욕심 잇다는 뜻시라<1894천로역,서007a>
 다. 미귀 정신 희미하다는 뜻시라 즈만 그만흐야도 족하다는 뜻시라<1894천로역,서011a>

- 라. 두 사람이 궂치 가는 거시 흔 사람만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올토다<1894천로역, 하168a>
- 마. 또 싸흠과 싸흠된다는 소문을 드러도 두려워 마라<1900신약전, 마
24,06>
- 바. 괴한 질병이 있다는 말이 자조 들니나<1905기해일020a>

(15)는 소설류에 나타난 ‘-다는’의 예이다.

- (15) 가. 곰압다는 말은 업고 걱정스러운 말만 한단 말가?<19XX소강절
026>
- 나. 及其敵軍의 大陣이 鴨綠江 西에 至 흐얏다는 報道를 接하고
<1908을지문덕47>
- 다. 하느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의 일을 잠간 말노 흐자면 입으로는 예
수를 부르고 형실노는 마귀를 쫓아가는도다<1908경세종11>
- 라. 그런디 죽는다는 말은 다시 말오<1907고목화62>
- 마. 친흔 친구만 녀엿든 노름꾼들에 한 놈도 이 어려운 거슬 피여 준다
느 놈이 업테<1912만인계78>

(15가)는 고소설의 예로, 고소설에서는 해당 작품에만 ‘-다는’의 예가 집
중적으로 나타났다. (15나)는 국한문체로 작성된 역사전기소설의 예로, 역
사전기소설에서도 ‘-다는’의 예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반면 신소설의 경
우는 특정 작가나 특정 작품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문헌에서 용례가 두루
확인된다.

‘-다는’의 용례는 국한문체 잡지에서도 풍부하게 확인된다. (16)은 19세
기 말~20세기 초에 발행된 각종 학회지에 나타난 ‘-다는’의 예이다.

- (16) 가. 病死^{ᄃᆞ} 報를 接^{ᄃᆞ}고 各各會葬에 參^{ᄃᆞ}야 不幸^{ᄃᆞ}하다는 말이 當日까지는 畧치지 아니^{ᄃᆞ}는 者 中等人이요.<1896/12/15대조선독립협회회보02,005>
- 나. 蟲은 卽死^{ᄃᆞ}ᄃᆞ스나 其父도 亦 頭額이 被傷^{ᄃᆞ}야 鮮血이 淋漓^{ᄃᆞ}야 畢竟 死去^{ᄃᆞ}ᄃᆞ다는 說이 有^{ᄃᆞ}니<1906/07/31대한자강회월보01,024>
- 다. 卽 或 力의 保護에 依하야 意思로써 其 利益을 主張^{ᄃᆞ}ᄃᆞ는 意味라<1907/07/01서우08,025>
- 라. 寧히 自然에 放任^{ᄃᆞ}ᄃᆞ만 不如^{ᄃᆞ}ᄃᆞ는 思想이 各人腦裏에 深入^{ᄃᆞ} 것은 自然^{ᄃᆞ} 理勢라<1907/05/25대한유학생회학보03,085>
- 마. 京城孤兒院에서 孤兒를 敎育^{ᄃᆞ}ᄃᆞ는 說을 聞知^{ᄃᆞ}고<1908/12/25기호흥학회월보05,045>
- 바. 二月二十五日東京報를 據^{ᄃᆞ} 卽 日本來期衆議院 議員總選舉期日을 七月頃으로 延期^{ᄃᆞ}ᄃᆞ는 說이 有^{ᄃᆞ}나<1908/03/25대동학회월보02,056>

(17)은 교과서에 나타난 ‘-다는’의 예이다.

- (17) 가. 경쟁은 다토고 다톤^{ᄃᆞ}ᄃᆞ는 말삼이니<1908노동야학독본1,83>
- 나. 또 말삼^{ᄃᆞ}ᄃᆞ건대 외국 통상^{ᄃᆞ} 卽 三十(삼십)여 년에 타국 장사들은 물미듯 오는데 우리나라 장사는 외국에 간^{ᄃᆞ}ᄃᆞ는 말삼 듯지 못^{ᄃᆞ}ᄃᆞ소<1908노동야학독본1,86>
- 다. 宗族 中의 家勢(가세) 至貧(지빈)^{ᄃᆞ} 卽 子ㅣ 잇거든 恒상 錢穀(전곡)으로 救恤(구휼)^{ᄃᆞ}고 婚姻(혼인)과 喪葬(상장)에 더욱 極力補助(극력보조)^{ᄃᆞ}야 타인의 不睦(불목)^{ᄃᆞ}ᄃᆞ는 責(책)망을 免(면)ᄃᆞ지니<1909초목필지,상21>
- 라. 명성을 놀니다 ᄃᄃ은 지조를 닦아 립신양명 ᄃᄃᄃᄃ는 말이오<1909부유독습83>

이상의 용례들을 참고할 때 19세기 말~20세기 초에 ‘-다는’의 용례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문체의 자료들에 두루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법화가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데 반해 ‘-다는’의 출현은 너무나 갑작스럽고도 전면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는’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다는’의 문법화는 구어의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가 19세기 말 이후로 구어를 반영한 문헌들이 대거 등장하며 갑자기 문헌상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해석이다. 둘째, ‘-다는’은 ‘-(고) ㅎ-’ 탈락 과정을 거쳐 문법화된 형태가 아니라, ‘-단’으로부터 기원한 형태라는 해석이다.

첫 번째 해석이 갖는 난점은 근대국어 시기 대화문이나 언간 등 구어의 성격을 어느 정도 반영한 자료들에서도 ‘-다는’의 용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9세기 말 이후 용례가 급증한 ‘-다고(<-다 ㅎ고)’의 경우 근대국어 자료에서도 그 쓰임이 일부 확인되었는데(이필영 1995) ‘-다는’의 경우는 그러한 점진적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단’에서부터 ‘-다는’이라는 형태가 생겨났다는 것으로, ‘-닷(다+ㅅ)>-단(다+ㄴ)>-단>-다는’의 변화를 가정한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단’과 ‘-다는’이 시제 해석의 차이 없이 교체될 수 있는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보통 음절 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그 반대의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19세기 말에 갑자기 ‘-단’으로부터 ‘-다는’의 형태가 발달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아니면 제3의 해석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성급한 단정을 피하고, 19세기 말 이후 ‘-다는’의 갑작스러운 출현

여부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서 ‘-다는’의 등장
에 대한 논의를 일단 마무리한다.

VI. 결론

지금까지 ‘-단’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단’과 ‘-다는’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다(고) 하는’ → ‘-다는’
→ ‘-단’의 관계를 상정하고 ‘-다(고) 하는’과 ‘-다는’의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한 반면, 본고에서는 ‘-다는’과 ‘-단’의 관계에 대한 기존 사전 및 문법
서들의 일반적 가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단’
을 ‘-다는’의 음운론적 축약형으로 다루고 ‘-다는’을 ‘-단’으로 바꾸어도 시
제 해석에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다는’의 문법화의 주된 근거로
제시해 왔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가정은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다는’의 용례는 19세기 말부터 문증되지만, ‘-단’의 용례는 15세기부터
꾸준히 나타난다. 15세기의 ‘-단’은 종결어미 ‘-다’와 속격조사 ‘-ㅅ’의 결
합형인 ‘-닷’에서 유래하며, 16세기 이후 그 형태가 ‘-단’으로 굳어지면서
문법적 특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 출현 범위가 비한정절에서 한정절로
확대되었고 후행 명사의 범위도 한층 넓어진 것이다. ‘-단’은 17~18세기를
지나며 하나의 어미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는’은 19세기 말부터 ‘-단’과 동일한 분포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
는’의 갑작스러운 출현 원인이 무엇인지 본고에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지만, 현재까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점은 15세기 이래로 ‘-단’이 겪은
형태적, 기능적 변화들이 ‘-다는’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본고의 연구 결과는 그간 단순히 ‘-다는’의 음운론적 축약형 정도로만 언

급되어 온 ‘-단’의 문법적 발달과정을 상세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고의 결론은 ‘-단’과 ‘-다는’의 관계뿐 아니라, ‘-다는’의 문법화에 대한 기존의 가정들 역시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현대국어에서 ‘-다는’을 ‘-단’으로 바꾸어도 시제 해석에 차이가 없는 것이 ‘-다는’의 문법화를 지지하는 주된 근거로 제시되어 왔지만, ‘-단’의 경우 ‘-ㄴ’이 중세국어 속격조사로부터 발달된 형태이기 때문에 시제 표시 기능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는’의 ‘-는’이 ‘-단’의 ‘-ㄴ’처럼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는’이 정말 ‘-다(고) 하는’에서 ‘-(고) 하’의 탈락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역사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해당 변화가 일어난 시기는 언제였던 것일까? 오늘날 ‘-다고 한’으로 환원되는 ‘-단(『고려』의 ‘-단20’)'은 본고에서 다룬 ‘-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해결한 문제보다 남은 의문점이 더 많지만 본고의 논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미해결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의 논의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선효, 『인용 구문 ‘-다고 하는’과 ‘-다는’의 특성』, 『어학연구』40-1, 한국언어학회, 2004, pp.161-176.
- 남기심,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73.
- 남신혜, 『(-다는)의 유형과 문법화』, 『언어사실과관점』3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3, pp.289-314.
- 안병희, 『中世國語 屬格語尾 ‘-人’에 대하여』,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1968.
- 이관규, 『관형사 어미 “다는”에 대한 고찰』, 『새국어교육』77,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pp.489-504.
- 이광호, 『국어문법의 이해 1』, 태학사, 2001.
- 이지양, 『국어의 융합현상』, 국어학회, 1996.

- 이필영, 「통사적 구성에서의 축약에 대하여: ‘-다, -이라, -더라, -려, -노라’형을 중심으로」, 『국어학』26, 국어학회, 1995, pp.1-32.
- 이현희, 「中世國語 內的 話法の 性格」, 『한신대학교 논문집』3, 한신대학교, 1986, pp.191-227.
- _____,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15, 규장각한국학연구소, 1994, pp.57-81.
- 이홍식, 「명사구 보문」, 『국어학』33, 국어학회, 1999, pp.367-398.
- 임동훈, 「통사론과 통사 단위」, 『어학연구』31, 한국언어학회, 1995, pp.87-138.
- 임홍빈, 「사이시옷 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국어학』10, 국어학회, 1981, pp.1-35.
- 허 응,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1975.
- 홍운표, 「十五世紀 國語의 格研究」, 『국어연구』21, 서울대 국어연구회, 1969.
- Bybee, J., Frequency of Use and the Organization of Language. Papers in Laboratory Phonology V: Acquisition and the Lexicon (Michael B. Broe and Janet B. Pierrehumbert eds.), 2000, pp.250-268.

Abstract

Re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an*’ and ‘-*Daneun*’

- Focusing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dan*’ -

An, Ye-Lee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mmon assumption in Korean linguistics studies and dictionaries that ‘-*dan*’ is a phonological contraction of ‘-*daneun*’ cannot be supported by historical evidences. The form ‘-*dan*’ has been used since the 15th century onwards, but that of ‘-*daneun*’ abruptly came into being in the late 19th century. If ‘-*daneun*’ is the original form of ‘-*dan*’, its usage should have preceded or at least co-existed with the use of ‘-*dan*’. The form ‘-*dan*’ originated from ‘-*dat*’, which consists of final ending ‘-*da*’ and genitive particle ‘-*t*’. During the 15th century, both of ‘-*dat*’ and ‘-*dan*’ were used, but from the 16th century ‘-*dat*’ has gradually fallen into disuse while the use of ‘-*dan*’ has noticeably expanded. This morphological shift accompanied grammatical changes; whereas the type of nouns following ‘-*dan*’ had been limited to speech-related nouns until the 15th century, it has expanded to nouns referring to human, location, and even to bound noun ‘*geot*’. Moreover, ‘-*dan*’ began to be used in finite clauses from the 17th century combining with tense marker ‘-*na*’ or ‘-*eot*’, while its usage was restricted to nonfinite clauses during the 15th and 16th centuries; this shows that ‘-*dan*’ has been developed to a single ending through grammatical reconstruction. Meanwhile, the usage of ‘-*daneun*’ appeared from the late 19th century. When grammaticalization takes place, it is common that its process is slow and gradual; however, the form ‘-*daneun*’ suddenly appeared with almost no restriction up to genres or writing styles.

Key Word : -*dan*, -*daneun*, quotation marker, quotation clause, reconstruction

안예리

소속 :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전자우편 : yelee.a@gmail.com

이 논문은 2015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5년 11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